

샤미나드 보건의료센터

마리아니스트 수녀들은 인도의 도시 란치(Ranchi) 근처의 싱파(Singhpur)에서 2013 년부터 샤미나드 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센터는 싱파의 알폰소 에카 신부님의 요청으로 문을 열었다.

주변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들 고유의 민간요법이 훌륭하나 때때로 효과가 없어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응급 시에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마리아니스트 수녀들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샤미나드 보건의료센터를 알리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1차 초기 진료와 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 교육이 그들의 임무이다.

아래 사진들은 수녀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진료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이다.

